

2014년 9월 15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요약 말씀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여라

본문: <계 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눅 5: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 9: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름 위에 계신 자가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베어졌더라” 이런 말씀인데, 이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면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낫을 가지고 벼를 베고 곡식을 베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와 같이 구름 위에 계신 자가!!

우리가 볼 때는 ‘구름 위에’ 하면 저 하늘의 구름 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중의 구름 위에! 그때 당시 예수님을 ‘구름 위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구름 위에 앉으신 자가! 자기를 구세주로 보고 따르는 자들 위에 서 있는 자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은 주인공이 아니면 잘 못 풀립니다. 거기까지만 푸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만큼만 성서를 깨닫고 풀지 더 이상은 못 풀립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구세주만큼 말씀을 풀고 사명을 하지 더 이상은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들도 사도들만큼만 하지 더 이상은 못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입장도 그 사명을 가져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둬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이 씨 뿌린 것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말씀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늘 말씀으로 선포해 줄 때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도 옛날 같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겠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하며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정말 그러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과 일체 되지 못 하고 하늘의 구원자를 못 만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루라도 믿었냐?” 그렇게 물을 때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 같이 낫을 휘둘러서, 말씀의 낫을 휘둘러서, 시대 말씀을 휘

둘러서 모두 거둬들이자!

하나님이 낚을 휘두르라고 했으니 같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선불리 하지 말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려면. 그러듯이 여러분도 깊은 말씀을 전해 줘야 됩니다. 이 깊은 말씀, 시대의 말씀을 전해줘야 온다는 것입니다. 시대 말씀을 전해야 시대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추수 일꾼들이 되어서 추수하라. 너희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학교 공부하면서, 뛰고 달리면서 생활 속에 전도하라. 전도 하라!”

계속 해서 시대의 말씀을 전해 봐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고, 파도가 억세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낚을 휘둘러 말씀을 휘두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을철에 추수하듯이 우리가 시대에 섬리의 가을철에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관리라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아이고 남 관리보다 내가 죽겠다.’ 하는데 남의 생명을 관리할 때 자기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 이와 같이 전도하자! 생명을 이끌어 오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전도할 때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못 받았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길을 보면 좁고 그런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믿을 때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라! 감격하며 살도록 하라!

여러분들도 이따가 내가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해버릴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뜨거운 길에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픈 사람! 옆의 사람 쳐다 볼 것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아픕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라고 했고, 첫째는 구원 받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자고 하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안쓰럽게 고생하고 고통 받고 눈물겹게 사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 멋있게 사는 모습 보려고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인간 무지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오라고 했으니 첫째는 이 병든 것과 아픈 것들, 모든 이 병들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난치병, 몸에는 암세포로 인해서 병들어 가는데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병으로 아파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니 먼저는 첫째는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너무 안타까우니 내가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것과 약한 것을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나음을 받아라. 아버지 이들이 병든 것, 아픈 것을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열심히 살겠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든 불필요한 모든 병들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니 놔두면 안 되니, 내가 신유의 낫을 휘둘러 이들을 치료하오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해져라! 너희들의 믿음대로 나아지기를 원하노라!

저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 나았다고 편지가 와서 너무 감격했는데 “에이, 이거 또 해야지”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아니,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낫을 휘두르면 풀이 베어지고 톱을 휘두르면 나무가 베어지듯이 네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낫겠냐? 확인하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낫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겠지만, 능력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간구하오니 강건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이 심령의 병들도, 근심 걱정 염려 재리에 빠진 자도 그 병들을 고침 받고, 악평하는 자의 악평을 듣고 의심하는 병들도 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모두 낫고 건강을 받고 기쁨으로 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의와 공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결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자고 했으니 이제 모두 내가 낫을 휘두르니, 말씀의 낫을 휘둘러 것이니 모두 데려오라.

못 했으니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로 하나님께 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뜻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안녕!